지역 건설업체 '연쇄 부도 공포'

경기 침체·건자재값 폭등 … 올 광주·전남 27곳 문닫아

공공수주 물량 확대·건축비 현실화 등 대책 마련 시급

올 들어 건설경기 침체와 건자재값 급등 등의 여파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커지면서 광주·전남의 부도 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의 '불똥'이 하청업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부도처리된 일반·전문건설업체는 총 27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6개)에 비해 68.8%(11개) 늘어난 것으로,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공사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 이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전국 부도업체(180곳)의 15.0% 수준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압박이 타 시·도에 비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들어선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부도가 급증세를 나타내는 등 하청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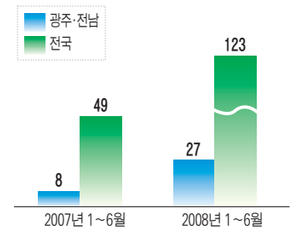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부도 처리된 전문업체는 23곳으로, 지난해 상반기(8개)보다 3배 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지역 전문업체의 총 부도 건수(14건)를 이미 넘어설 만큼 '부도 도미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올해 D업체와 Y업체 등 관내 10위권 업체 2곳을 비롯해 총 13곳의 전문업체가 부도처리됐다. 전남도 중견 전문업체인 G건설 등이 지난해 말 거립건설의 부도 여파로 문을 닫는 등 전문업체 10곳이 건설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부도 문제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자재값 폭등 등이 주된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선 SOC 등을 통한 공공수주 물량 확대, 최저가 입찰제 확대 재검토, 자재값 급등에 따른 건축비 현실화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 전문건설업체 부도 현황 (단위:개)



〈자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또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대출규제 완화 및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미분양주택 계약자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수의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최근 정부의 미분양 대책 만으론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종합·전문업체의 '부도 도미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불복청구 납세자 의견진술 전화로 손쉽게 할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전국 첫 '전화의견진술제' 도입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이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최초로 불복청구 납세자가 불복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전화를 통해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전화의견진술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현업에 종사하는 불복청구 납세자들은 진술신청서에 청구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전화를 통해 심의위원들과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어 큰 불편을 덜게 됐다.

그간 과세처분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 서면으로 다하지 못한 주장을 불복청구 심의위원들에게 진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최 당일 진술시간에 맞춰 출석해야 해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의견진술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전화의견진술제도가 활성화되면 불복심의위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심리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리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 900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가 개최하고 있는 '금요조찬연수회'가 4일 900회를 맞는다. 지난 1990년 6월1일 첫 회를 시작한 지 18년 1개월만의 기록이다.

연수회는 그간 기업인들의 경영혁신 지원과 지식·정보 습득, 비즈니스 친교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학계, 경제계 등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경제·경영·사회문화·건강·노동문제·의식교육 등 다양한 주제와 지역현안, 사회이슈 등에 관해 강연을 펼쳤다.

연수회가 900회에 이르는 동안 1회 평균 87명, 연인원 8만명이 강연을 경청했으며 올해 들어 1회 평균 참석자가 147명으로 크게 늘었다.

광주·전남경총은 900회를 맞아 새로운 변신을 모색한다. 1년 단위로 '금요조찬연수회-한국평생교육최고지도자과정'을 개설, 일정 자격 이상의 참석자에게 조선대 총장과 경영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폐휴대전화 가져오세요"

등산복 아웃도어 기업 동진레저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공동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 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진행, 2일 서울 용산 현대아이파크백화점 블랙야크 매장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오는 8월20일까지 동진레저 전국 매장에 폐 휴대폰을 반납하면 전 품목 20% 할인권을 제공받는다.

/연합뉴스

부가세 확정신고 개선 기재사항 대폭 단순화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494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신고서식과 기재사항을 대폭 단순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공제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 160만명은 전자신고를 할 때 기본사항 입력부터 모두 6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존 입력방식 대신 별도로 마련된 메뉴를 통해 기본사항과 매출세액 등 2단계 화면만 거치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시 산학협력사업 '긍정적'

참여 중소기업 97% "만족한다"

광주시의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 기업들의 만족도가 97%에 달하는 등 산학협력사업이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산학협력사업에 참가한 관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광주시 산학협력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들은 회사설립 10년 전후, 50인 이상 근무 기업체다.

기업들은 주로 기술개발(32.2%), 기술지도(37.1%), 인력양성(21.0%), 장비지원(9.7%) 등에서 도움이 됐으며, 특히 88.7%가 '매출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불만족·애로사항' 항목에서는 54.7%가 '인력·재원 부족'을 꼽았으며 20.3%는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응답, 산학협력사업의 재원확충과 사업기간 연장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내 150개 농수축산물 3년간 '도지사품질인증'

전남도는 앞으로 3년동안 장흥 유기농 어성초엑기스, 진도 간장전복, 영암 매력한우 등 전남도내 150개 농수축산물이 우수 특산품임을 보증해 주기로 했다.

전남도는 3일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51개 업체, 150개 제품에 대해 '도지사품질인증'을 해주고 2011년까지 인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17개 업체 55개 제품, 축산물 5개 업체 6개 제품, 수산물 10개 업체 26개 제품 등이다.

또 연장 허가를 받은 곳은 19개 업체 63개 제품으로 이중 농산물은 15개 업체 48개 제품, 수산물 4개 업체 15개 제품이다.

'도지사품질인증'상표 사용 허가제는 전남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해 품질의 우수성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입증된 상품을 전남도가 보증해 주는 제도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복합쇼핑몰 금호월드 '제2도약' 선언

호남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금호월드가 지난 1일 안창만 단장〈사진〉을 새로 선임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금호월드는 전자, 컴퓨터, 악기 소품, 혼수용품 전문 쇼핑몰로, 오는 9월 자체 결혼박람회를 여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안 단장은 "금호월드의 도약을 위해선 공동구매·판매·배달 등 공동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공동상표 개발 등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혈당측정기 '아큐-첵' 고객감사 행사

국내 혈당측정기 업계 가운데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한 아큐-첵이 이를 기념해 지난달 16일부터 '고객 감사이벤트'를 갖고 있다.

이벤트 기간중 아큐-첵 혈당측정기를 구입하면 추첨을 통해 유럽여행권, 42인치 LCD-TV, 음식물 처리기, 당뇨책자 '헬스조선 M'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또 아큐-첵 혈당검사지를 2통 이상 구입할 경우 즉석에서 고급 우산이나 니베아 썬 크림을 증정한다. 한편 2008년 신제품 '아큐-첵 퍼포마'도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입문의 1644-0119.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